

무소속 현직 프리미엄이나 정당 조직력이나

광양시장

광양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현직 프리미엄과 정당 조직력 간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현직 시장이 무소속인 탓에 여야 모두 승부를 거둬볼만하다고 판단, 예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정현복(71) 현 광양시장과 김재무(59) 전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무소속 정 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전 위원장과 김재후(69) 전 보성부군수가, 민주평화당에서는 남기호(62)·이정문(65) 전 광양시의회 의장이 당내 경선을 거쳐 승자가 본선에서 대결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유현주(48) 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재선에 나서는 정 시장은 '소통행정'을 내세우며, 마을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저인망식 전략을 펴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0일 광양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2개 읍·면·동을 모두 돌며 시민들을 만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아이·청년·여성'이 행복한



정현복 시장

김재무 전 위원장

김재후 전 부군수

남기호 전 시의장

이정문 전 시의장

유현주 위원장

정현복-김재무 후보 리턴매치 성사 관심

김재후·남기호·이정문·유현주도 도전장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혜의 자연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을 기반 삼아 '빛의 도시' 광양이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민주당 김재무 전 위원장은 그동안 외신담당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왔다. 그는 지난 11일 지역위원직을 던지면서 "광양시장 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제철산

업 위주의 기존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광양항건부두, 세풍산단, 화학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스포츠 산업을 부흥시켜 광양을 찾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후 전 부군수도 다음달 2일 예비후보 등록한 뒤 당내 경선을 위한 본격 세(勢)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 전 부군수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투자유치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광양경제 활성화의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남기호·이정문 전 광양시의회 의장이 예선전을 치른다. 남 전 의장은 시의원 3선과 전남도의원,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내 높은 인지도는 물론 당내 신망도 두둑하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지역 현안을 꿰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3선 시의원인 이 전 의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이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밀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남도의원을 지낸 유현주 지역위원장이 지역 노동자·농민·중소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만나며 '준비된 시장론'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선거때마다 이변 ... 중마지구 표심 어디로

광양제철소 조성 외지인 많아

보수정당 표 10% 안팎 꾸준

광양시민의 정치 성향은 독특하다. 현재 '여당 속 야당'의 정서다. 지역적·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양은 지역적으로는 전남에 속하지만 경남과 인접해 있어 영·호남이 어우러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조성되면서 외지인이 많은 탓에 그만큼 문화·정치성향도 다양화됐다.

이는 그동안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났다. 표심으로 보면 광양은 '야당 속 여당' 분위기다. 그동안 선거에서 보수정당 지지표가 10% 안팎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남 다른 지역에 비해 갑절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장 선거에서도 이같은 성향이 드러난다. 앞서 2차례 광양시장 선거에서 무

소속 후보가 호남의 맹주를 자임하는 민주당 후보를 꺾고 모두 당선됐다.

2010년 선거에서는 이상용 시장이, 2014년에는 정현복 시장이 무소속 신화를 일궜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광양시장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중마지구(옛 동광양)의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광양을 선거인수가 3만5133명인데 반해 중마지구(중마동 3만4515명, 금호동 1만244명, 광영동 9764명)는 5만4523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중마지구는 광양제철소가 인접해 젊은층과 외지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징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현 군수 3선 가도에 도의원·대학교수 등 대거 도전

담양군수

이번 선거는 그동안 최형식(62) 군수의 3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런 가운데 최 군수가 최근 3선 도전을 결심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됐다.

최 군수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 군수에 당선됐지만, 4년 뒤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민선 5기와 6기 군수에 연거푸 당선돼 세번째 군정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나설 경우 사실상 4선 도전인 셈이다.

최 군수는 다선의 경험과 풍부한 정치경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세계대나무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사실상 4번째 군수직 도전이라는 점에서 일부 바다 민심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되며 다른 지역민의 불신 등이 3연속 군수 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 군수에 대항해 민주당 내에서는 재선의 박철홍(57) 전남도의원, 최화삼(63)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민선 3기 담양군수 비서실장



최형식 군수

박철홍 도의원

최화삼 이사장

강승환 대표이사

김현석 소장

신동호 교수

최형식·박철홍·최화삼 민주당 경선 3파전 예고

바미 강승환, 무소속 전정철·신동호·김현석 도전

을 거쳐 현재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군정과 행정 능력도 갖췄다는 게 강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였던 최 군수와 경쟁함에 따라 정치적 부담과 그 벽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최 이사장은 재선의 담양군 의원을 지내고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탄탄한 밀바닥 조직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직 기반을 통해 자신감을 보이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바미미래당에서는 강승환(59) 정족당 대표이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

의국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논란이 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대한 효력정지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강 대표는 모든 인허가와 공무원 승진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인 전정철(60) 전남도의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재선의 담양군의회와 현 도의원 등을 거친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을 내세우고 지역민과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

4년 전 담양군수에 출마해 5%대의 지지를 받았던 신동호(61) 전남대 교수는 무소

속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 및 교육·농업·축산·수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강점인 그는 지역의 현안인 인구문제와 지역산업 발전 등을 이끌 책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40대 젊음을 앞세운 김현석(48) 새희망플러스 정책연구장도 군수 선거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의원과 한국자산공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자체를 연계한 새로운 창조적 마을 100개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메타프로방스 발목 최 군수 3선 넘을까

법원 잇따른 제동에

지역민 불신 악재로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최형식 현 군수의 3선 성공 여부다. 최 군수의 3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메타프로방스'가 꼽힌다.

최 군수가 민선 6기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메타프로방스는 임시개장 1년여 만에 담양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담양군은 이 사업을 재인가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지난해 11월 법원이 또 다시 '재인가 처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따라 지역민들

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3선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바미미래당으로 출마 예정인 강승환 사법정의국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불법성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선거전략을 세우고 있어 선거기간 내내 정치 쟁점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 군수의 부인 고모씨의 '위증죄'도 구설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씨는 공무로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청사 이전 등 담양을 재설계, 담양경제 활성화, 인구 대책 등도 후보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군수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박철홍 전남도 의원은 '군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첨단 우리병원에서는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 ✓ 척추관 협착증
- ✓ 허리 디스크
- ✓ 목 디스크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